



쌍용자동차

# 보도자료

2012년 11월 1일(목)

## 쌍용자동차, 3분기 매출 6,965억 달성

-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영향, 전년동기 대비 판매 4.4%, 매출 6.8% 감소
- 내수판매 증가 및 환율 상승 효과로 당기 순손실(134억) 규모 전년동기 대비 감소
- 추가적인 제품개선 모델 출시 및 해외시장 확대 통해 판매물량 더욱 늘려나갈 것

쌍용자동차(대표이사 이유일: [www.smotor.com](http://www.smotor.com))가 지난 3분기 ▲내수 11,906대, 수출 17,133대(CKD 포함)를 포함 총 29,039대를 판매해 ▲매출 6,965억 ▲당기순손실 134억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.

이는 「코란도스포츠」 등 제품개선 모델의 호조에 따른 내수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판매대수 및 매출은 각각 4.4%, 6.8% 감소했으나 누계로는 각각 0.6%, 2.1% 감소하는데 그쳤다.

손익측면에서는 내수판매 증가와 함께 환율 상승 효과에 따라 당기순손실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무엇보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내수 시장 역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 중 쌍용자동차 만이 유일하게 내수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.

특히 「코란도 C」와 「코란도스포츠」가 내수 판매 증가세를 주도하며 3분기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19.8% 증가한 11,906대를, 누계로는 11.8% 증가한 33,747대를 판매 했다.

수출 실적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전년 3분기 대비 16.1% 감소한 17,133대를, 누계로는 7.3% 감소한 51,945대를 판매했다.

그러나 10월 중 가솔린 「코란도 C」 자동변속기 모델이 러시아, 중국 등 가솔린 비중이 큰 지역에 새롭게 투입될 예정인 만큼 수출물량도 곧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.

3분기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(-306억) 대비 손실규모가 감소한 -154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“현재 쌍용자동차는 「코란도스포츠」 및 「렉스턴 W」 등 제품개선 모델들의 성공적인 출시로 인해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”며 “추가적인 제품개선 모델 출시와 해외시장 판매확대 정책 시행을 통해 판매 물량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 <끝>

■ 2012년 3분기 판매 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2012년		2011년		전년 동기 증감율	
	3분기	누계	3분기	누계	3분기	누계
판매대수	29,039	85,692	30,367	86,240	-4.4%	-0.6%
내 수	11,906	33,747	9,939	30,185	19.8%	11.8%
수 출	17,133	51,945	20,428	56,055	-16.1%	-7.3%
(CKD)	(264)	(312)	(60)	(720)	340.0%	-56.7%

■ 2012년 3분기 손익 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2012년		2011년		전년 동기 증감율	
	3분기	누계	3분기	누계	3분기	누계
매 출 액	6,965	20,524	7,470	20,962	-6.8%	-2.1%
영업손실	-154	-692	-306	-1,059	-	-
법인세 차감전 순손실	-134	-659	-354	-677	-	-
당기순손실	-134	-659	-354	-677	-	-